

## 한국 고전소설의 한영 번역 연구\*

-문화소 번역의 양태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노진서

### Abstract

**Noh, Jinseo.** 2013. 6. 30. **Cultural Element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Bilingual Research* 52, 101-12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important cultural elements are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e Korean language is characterized as a high context-culture language while the English language is characterized as a low context-culture languag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has given a lot of difficulties to translators when the cultural elements in literary texts are translated. The meanings of culture-specific items cannot be understood fully by target text readers because they don't have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the source culture. Therefore, the translator are required to be a mediator who enables source and target text readers to share the cultural background.

This paper has investigated six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hich contain a lot of cultural elements, as the bases for the analysis of translation patterns.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been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ultural elements of source text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target text by four translation patterns, such as generalization, specification, localization and emprunt. Each has its strong and weak point as well as its unique characteristic. In most cases, the meaning of cultural elements has been successfully delivered but some high contextual information in Korean culture cannot be fully translated into English. Accordingly, the deeper analyses about the translation of these cultural elements are urgently needed. (Kwangwoon University)

**【Key words】** cross-language equivalence(언어적 등가), cultural elements(문화

---

\* 이 논문은 2013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소), source text(원문), target text(번역문), translation pattern(번역 양태), translator(번역가)

## 1. 서론

번역은 원천 언어(source text)로 쓰여 있는 텍스트를 목표 언어 사용자들을 위하여 목표 언어(target text)의 텍스트로 바꾸는 일이다. 번역이란 한자어가 시사하듯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거쳐 원천언어가 갖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등가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번역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의 의미와 역할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초기의 번역은 단어 대 단어로 옮기는 직역 위주의 번역이 주를 이루었고 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텍스트언어학의 출현으로 번역학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텍스트언어학의 주요 목적인 텍스트 등가개념의 설정은 원문 중심의 형식일치를 더 중시하던 관점에서 등가 번역의 비중을 대등한 관계로까지 올려놓았고 뿐만 아니라 번역에서 등가의 기능적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은 이제 의미와 문체를 고려하여 원천언어 텍스트와 가장 가까운 목표언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데에 무게를 두게 됨에 따라 언어적 등가를 구현하는 문제가 번역학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 번역이론은 의미적, 화용적, 기능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등가 개념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Nida & Taber(1982: 109-113)의 ‘메시지 전이 모델’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번역이 목표 언어의 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원문 텍스트와 동일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번역을 강조

하면서 번역자가 두 문화 사이를 이어주는 중계인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번역은 원천언어 텍스트를 충실히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번역등가를 만들어 목표언어 텍스트를 재창작하는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번역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Catford(1965)가 언급한 언어적 번역 불가능성(linguistic untranslatability)과 문화적 번역 불가능성<sup>1)</sup>(cultural untranslatability)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다. 언어적 번역 불가능성은 원천 언어의 어휘적, 문법적 표현과 맞먹는 표현이 목표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문화적 번역 불가능성은 원천 언어에 나타나 있는 문맥 상황이 목표 언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을 때 번역이 불가능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여 원천 언어의 독자들만큼 목표 언어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옮겨내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이다. 그런데 각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원천 언어 텍스트를 특정 목표 언어 문화권에서 수용되는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원천 언어 텍스트에 들어 있는 문화소를 번역하는 번역가는 원천 언어 문화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문화소로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번역가는 두 이질적 문화 사이에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인 의미 전달을 위한 중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 고전소설에 들어 있는 문화소 영역 사례를 발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한국 고전소설 영역 총서 가운데 『심청전』, 『장끼전』, 『춘향전』, 『콩쥐 팥쥐전』, 『토끼전』,

1) 이석규 외.(2003: 18)에서 재인용.

『홍부전』을 영역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소가 영어로 옮겨진 양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대체로 문화권마다 타 문화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그 나름의 독특한 언어 표현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그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언어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 관용구, 그리고 고유명사, 도량형 단위와 관련된 어휘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언어 요소를 Vermeer(1983: 8)는 문화소(cultureme)라 불렀다. 그는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타 문화를 비교했을 때, 자신들만의 특이한 요소를 담고 있는 언어 표현을 문화소라고 지칭하면서 이 문화소는 번역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Aixelá(1996: 56-57)는 언어적인 요소와는 별도로 문화적인 요소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문화 특정적 항목(culture specific items)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문화 특정적 항목이 목표 언어로 번역될 때 번역상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는 개별 문화권 내의 기관명, 거리, 역사적 인물, 예술 작품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항목들을 번역할 때 원천 언어 텍스트와 목표 언어 텍스트 간의 문화적 부등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소를 번역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이근희(2003: 7)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되는 특정 어휘의 번역을 언급하였다. 그는 고유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성을 가지는 어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어휘, 화폐나 중량 등의 도량형 단위, 그리고 지위나 직위처럼 인명과 동시에 사용되는 표현 그리고 낱자 표기 같은 것

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또 김효중(2004: 37-39)은 문학 번역과 문화 관계를 거론하면서 문화소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특정 언어권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문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를테면, 언어학에서 말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하듯이 문화소는 문화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원천 언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만 목표 언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및 문화권의 제도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번역상의 어려운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문화소에 관한 국내 연구는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소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주로 어휘 위주의 번역 전략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김도훈(2006)은 관광 관련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소의 번역을 다루었고 또 김도훈(2012)은 문화소를 문화 고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소의 중요성과 번역 전략을 논하였다. 그리고 김영신(2009)과 김순영(2012)은 문학 작품 번역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문화소 번역을 연구한 것이다. 즉 김영신은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번역할 때 원천 텍스트에 기초한 번역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의 독자가 갖는 가독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문제로 문화소를 다루었다. 또한 김순영은 번역 전략을 다루면서 그때 파생되는 문제의 하나로 문화소를 다루었는데 너무 상세하거나 반대로 언표화된 의미만을 전하는 문화소 번역은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기존의 문화소 번역에 관한 연구들은 어느 하나의 문화권 텍스트를 타문화권 텍스트로 번역한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 과정에서 사용된 번역 전략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들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문화소 관련 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소 번역에서 드러난 번역 양태뿐만 아니라 번역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3. 문화소 번역의 양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 고전 연구회에서 발간한 한국 고전 문학 영역 총서 20권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홍부전』, 『콩쥐팍쥐전』, 『토끼전』, 『장끼전』, 『심청전』, 『춘향전』의 영역본이다. 이 장에서는 여섯 권의 영역본에서 문화소가 영역된 사례를 발췌하여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번역 양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 3.1. 상위어 및 일반적 어휘로 번역

상위어 및 일반적 어휘로 옮기는 방법은 두 문화권 사이에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원천 언어 문화권의 어느 특정 영역이 목표 언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원천 언어는 그 영역에 대하여 세분화된 언어를 갖게 되는데 비해 목표 언어는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천 언어 텍스트를 목표 언어 텍스트로 번역할 때 목표 언어에는 원천 언어에 상응하는 등가 어휘나 표현이 없어 번역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목표 언어에서 더 포괄적 의미를 갖는 상위어(hypernym)나 일반적 어휘를 골라 부등성을 극복한 사례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그들은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우혜로 벌여 놓고 축문을 읽을 적에 심봉사가 본래부터 맹인이 아닌 이십 후의 실명이라 머릿속에 들어 있는 학식이 많으므로 원한이 사무치는 축문을 몸소 지어 읽는다.

When they displayed sacrificial foods, according to the custom, Blind Sim himself read a ritual prayer written by himself full of rancor.

- 심청전

예문 (1)에서 원천 텍스트의 ‘어동육서, 흥동백서, 좌포우혜’ 등은 한국어 문화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차리는 관습이다. 예를 들면 어류 음식은 제사상 동쪽에, 육류로 된 제물은 제사상의 서쪽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과일도 아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붉은 과일은 제사상의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이런 식의 예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거행하는 한국의 제사법이 영어 문화권에는 없으니 한국어의 제사 용어에 대한 등가어가 영어에 있을 리가 없다. 또한 영어 문화권의 독자는 그 관습을 전혀 알지 못하니 설사 번역한다고 해도 한국어 문화권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목표 언어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 ‘sacrificial foods’ 라는 일반적 어휘로 번역하였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2) 당상의 모든 수령들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갈 때 어사 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분통하랴.

As he saw that governors in every table had a lot of food in front of them and everyone enjoying the music, he started feeling angry.

- 춘향전

예문 (2)에서 원천 언어의 ‘진양조’가 목표 언어 텍스트에서 ‘the music’으로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진양조’는 국악의 일종으로 박자가 가장 느린 연희용 가락을 가리키는 어휘이기 때문에 목표 언어인 영어에 그에 상응하는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가는 정확성을 포기하는 대신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상위어 ‘the music’으로 번역한 것이다. 또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3) 오뉴월 삼복중에 산과 들에 불이 나서 시냇물이 끓을 적에 살에서는

기름 나고 털끝마다 누린내라.

In mid summer, when a fire breaks out, which makes streams boil, your fat comes out of your flesh and you have a scorched smell.

- 토끼전

앞의 예문 (3)에서는 한국어 문화권에서 아주 무더위 지내기 힘든 시절이라는 표현의 ‘오뉴월 삼복’이라는 표현을 일반적 의미의 어휘인 ‘mid summer’로 옮겼다. 이것은 번역가가 포괄적 의미를 갖는 상위어 및 일반적 의미를 갖는 어휘를 활용하여 광의의 등가를 모색한 사례이다. 의미장 이론에 따르면 상위어는 의미가 구체화되고 지칭 범위가 좁아지는 하위어를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 의미를 가진 어휘로 인하여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상위어로 대체하면 번역 불가능은 대체로 해소된다. 하지만 정확하고 충실한 번역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는 커다란 단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소의 부등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상위어 사용은 목표 언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원천 언어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번역의 정확도와 충실도 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다.

### 3.2. 설명적 풀어쓰기로 번역

두 문화 간 격차가 심하거나 또 두 문화권의 사용 언어가 어족이 다른 경우, 문화소의 부등성은 심화하게 되어 번역상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원천 언어 텍스트에 있는 어휘의 개념이 목표 언어에 존재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문화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번역가는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뒤뜰로 돌아가서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주과를 차려놓고 통곡하며 하직하는데...

Turning toward the back yard quietly, she opened the door of the family shrine, set fruits and drink, and wailed bitterly with saying goodbye. - 심정전

예문 (4)에서 ‘사당문’은 한국 문화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어휘이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양반집에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곳이 바로 사당이다. 그런데 영어 문화권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칭하는 어휘가 있을 리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궁여지책으로 설명적으로 풀어쓰기를 택했다. 즉, ‘사당문’을 가문의 성소로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의 ‘the door of the family shrine’으로 설명적인 어휘를 덧붙여 번역하였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 (5) 이번엔 새로 도입한 감사로 말하면 당초에 벼슬이 종일품이요, 승지와 참판을 차례로 지낸 다음...

As for this new governor, he was from the beginning in the high position, and then he was assumed of a secretary of king, a vice minister one after another. - 콩쥐팥쥐전

(5)의 예문에서 보듯, 조선시대의 계급 문화를 숙지하고 있는 한국어 사용자들은 ‘종일품’ 어휘에서 조선시대 관직의 품계를 떠올리며 상당히 높은 벼슬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전 지식이 없고 또 계급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는 영어 사용자들이 종일품의 정확한 함축 의미를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높은 지위라는 의미, 즉 ‘the high position’이라는 설명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여 영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설명적 풀어쓰기 번역은 번역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으로 평가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적 어구를 추가함으로써 원천 언어 텍스트의 문체가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다.

### 3.3. 문화대체어로 번역

원천 언어와 지시적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목표 언어 사용자에게 더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량형 단위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권마다 길이, 무게, 부피, 화폐 등 도량형의 단위는 다르다. 그러므로 원천 언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도량형의 단위를 그대로 목표 언어 텍스트에 옮겨 놓을 경우, 목표 언어의 독자들은 정확한 수치를 짐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천 언어 텍스트 상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에 목표 언어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어휘로 대체하여 이해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성 밖에 한 꽤기 땅도 없고 행랑채에 노비도 없으니 가련한 꺾 씨 부인은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며 품을 팔더라.

As they had neither an acre of land nor a slave, she had to work for wages. - 심청전

예문 (6)의 ‘꽤기’는 한국 문화권에서 경계를 지어 놓은 논밭의 구획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을 경우, 목표 언어 독자인 영어 사용자들은 그 뜻을 알아차리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번역가는 영어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넓이의 단위, 즉 ‘acre’로 바꾸어 영어 문화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우리는 녹수청산 벗님네와 무릉도원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궁한 회포를 다 펴지 못하고 총총히 하직하니...

Since we have an appointment with friends in green nature to go to the Utopia, we'll have to say goodbye quickly not unburdening our limitless heart to You Majesty. - 토끼전

예문 (7)의 ‘무릉도원’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 널리 통용되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음차번역을 하여 목표 언어인 영어로 옮길 경우, 영어 사용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영어 문화권에서 이상향을 가리키는 ‘Utopia’로 번역하여 영어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8) 또한 두 귀가 희고 준수하니 남의 말을 잘 들어 부귀를 할 것이요..

Also your two white good-looking ears show that you give ear to other's saying, which will make you rich, ... - 토끼전

예문 (8)은 관용적 표현을 번역한 예이다. 관용적 표현은 문화권에 거주하는 언어 사용자들의 오랜 관습 속에서 형성되어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예문 (8)에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관용구의 의미는 청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럴 경우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인 ‘귀를 기울이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목표 언어 텍스트를 읽는 영어 사용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영어 사용자들에게 통용되는 ‘give ear to’라는 관용구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문화 대체어 번역 방법은 목표 언어 독자들에게 낯선 의미로

다가오는 문화소를 익숙한 언어 표현으로 현지화<sup>2)</sup>(domestication)하여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두 문화소 사이의 격차를 좁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 언어 텍스트의 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 원천 언어 텍스트가 갖는 지시적 의미와 이문화적 요소를 배제한 번역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다.

### 3.4. 음 차용 번역

원천 언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신조어 및 유행어는 개별 언어 특유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언어에서 그에 대응되는 등가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대체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번역가는 불가피하게 그 어휘의 음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궁여지책의 이런 방법이 원천 언어가 갖는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한 번만 번역해 놓으면 이후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지화와는 반대로 타국화<sup>3)</sup>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별도의 주석을 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음을 차용한 어휘에 설명을 덧붙이는 형태이다. 먼저, 주석을 달아 번역하는 예를 보자.

(9) 황금 더미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시레!

Fulfil our desire of a heap of gold. Gosire!

- 심청전

\* Gosire: the words asking ghosts to have the offering foods.

2) Venuti(1995: 116)는 현지화를 언급하며 이것은 목표 언어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언어 표현과 문화를 친숙하게 접근시키는 유용한 번역 전략이라고 하였다.

3) 김효중(2004: 35-36)에서 인용.

예문 (9)에서 ‘고시레’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한국적 색채가 짙은 제례의식 용어이다. 이런 어휘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사용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휘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한국적 색채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또한 주석으로써 의미를 충실하게 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 (10) 과인의 이 한 몸 죽어서 북망산 깊은 곳에 백골이 진토 되어 세상의 영화와 부귀가 헛되도다.

I passed away and my white bone became the soil in the deep mountain Bukmang, the place with lots of graves. The wealth and glory of the world would be in vain!  
- 토끼전

- (11) 그것이 송편인데 추석날 해 먹는 것이란다.

That's called a rice cake, Songpyeon, which we used to eat at Thanksgiving day, Chuseok.  
- 흥부전

위의 예문들은 앞서 언급한 경우와는 달리 원천 언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번역한 예이다. 즉, (10)에서 보듯이, 한국어 문화권에서 ‘북망산’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장소를 지칭하는 어휘로서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영어 문화권에는 ‘북망산’이라는 어휘가 없어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Bukmang’의 음을 차용하면서 무덤이 많은 곳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 예문 (11)에서도 마찬가지로 ‘송편, 추석’이라는 한국적 색채가 짙은 어휘를 음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부연한 경우이다.

이러한 음 차용 번역은 원천 언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이국적인 요소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주석을 추가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어구를 첨가함으로써 원천 텍스트의 문체를 훼손

손하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 4. 문화소 번역에서 제기된 문제점

이 장에서는 한국 고전 소설의 문화소 번역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번역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두 문화 간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너무 달라서 문화소 의미가 목표 언어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호칭 문제이다. 한국 고전 소설 속에 묘사된 시대상은 계층 간 서열이 뚜렷한 계급 사회였다. 반상의 차별은 물론이고 남존여비의 관습에 따라 남녀의 차별, 그리고 장유유서에 따른 세대의 서열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국왕, 양반, 평민, 노예 등의 사회 계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 서열에 관련된 호칭 및 존대어와 하대어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그에 비하여 영어는 존대어 및 하대어가 세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언어 사이에는 호칭에 관련한 현격한 부등성이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 날 만 하오나 서방님의 넓은 은덕으로 지금까지 탈이 없었으니...

My sin is heavy enough to be turned out of the family but I've been well under your generous favor. - 심청전

예문 (12)에서 ‘소첩’은 한국어 문화권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지칭어이다. 반대로 ‘서방님’은 아내가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나 영어 문화권에는 부부 간에 남존여비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2)의 예처럼

단순하고 획일화 된 대명사 ‘my’와 ‘your’만으로는 한국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 (13) 과인이 이제 경을 원로에 보냄에 있어 군신시간에 연연한 정을 감출 길이 없다.

Now that I have to send you far away, I am overcome by the lingering affection between you and me. - 토끼전

예문 (13)에서 ‘과인’은 한국어 문화권에서 국왕이 신하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며, ‘경’은 반대로 국왕이 신하를 높여 부르는 겸양지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칭어이다. 하지만 영어에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호칭이 없으므로 단순한 영어 대명사로 번역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한국어 원문 텍스트가 갖고 있는 호칭의 미묘한 의미가 목표 언어의 독자에게 충실하게 전달될 수 없다.

또한 한국어 문화권에는 한국어 사용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관습 및 의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무리 목표 언어로 잘 번역한다 해도 목표 언어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들은 그에 대한 선행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4)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는데 도령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오라...

A loyal servant cannot have two kings and a virtuous woman cannot have two husbands. You are from a noble family but myself is a mere peasant. - 춘향전

예문 (14)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사회에서 숭앙되던

행실에 관한 규범이다. 하지만 왕과 신하 사이의 계약 관계,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남녀관계에 익숙한 영어 사용자들은 (14)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 (15) 이렇듯이 구걸하여 매월 삭망과 대상, 소상을 빠뜨리지 않고 지냈다.

As he begged like this he performed memorial services on every first and fifteenth day of the lunar month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anniversaries of his wife's death without missing. - 심청전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 특이한 것 하나는 제사 풍속이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돌아가신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법이 무척 까다롭다. 그 한 예가 바로 예문 (15)에서 보듯 돌아가신 뒤 매달 보름날과 그믐날, 그리고 1년 후와 2년 후에 지내는 제사가 있다. 그것이 삭망, 대상, 소상 등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제사인데 목표 텍스트를 읽는 영어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고 따라서 번역된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용적 표현 및 속담을 번역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용적 표현 및 속담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경험하면서 공유한 생활양식에서 생겨난 개별 언어 특유의 언어 표현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 일지라도 그 경우에 사용되는 관용 표현은 개별 언어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원문 텍스트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이 글자 그대로 직역될 경우, 그것이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6) 내 신세를 돌아보니 개밥에 도토리요, 꿩 잃은 매가 되니...

Looking back my lot, I've been an outcast of my associates as a hawk lost its game of a pheasant and an acorn in the dog food.

- 심청전

(16)의 예문은 외롭고 허망한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국어 속담을 직역하여 옮겨 놓았다. 하지만 한국적 정서가 생소한 영어 사용자가 예문 (16)의 목표 텍스트를 접했을 때 한국인이 갖는 정서를 그대로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차라리 ‘an ostracized person’이라는 일반적 어휘로 고쳐 쓰면 원문이 갖는 비유의 묘미는 전달될 수 없겠지만 영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17)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Do not cry. There is always a way to get around problems even in the worst situations.

- 춘향전

(18) 여러 가지를 한데다 붓더니 손가락 댈 것 없이 손으로 휘휘 저어 한편으로 몰아치더니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 하는구나.

He then puts every dish into one bowl and then mixed them with his fingers and then finished his meal within a second. - 춘향전

앞의 (16)와 반대로 예문 (17)과 (18)은 한국어 속담을 평이하게 풀어서 번역한 예이다. 이런 경우, 목표 언어 텍스트를 읽는 영어 사용자들이 원문이 전하는 의미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속담이 갖는 특유의 감칠 맛 나는 묘미는 소실된 채 무미건조한 의미만을 겨우 전하는 번역이 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고전 소설 영역본에 실려 있는 문화소 영역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번역 양태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한국 고전 소설에 들어 있는 문화소를 효과적으로 번역하기 위하여 상위어로 바꾸거나, 설명적 풀어쓰기를 하거나, 문화대체어로 옮기거나, 음을 차용하여 번역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둘째, 번역의 일차적 목표가 목표 언어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풀어쓰는 방식을 통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구체화하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원문의 문체를 도외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두 문화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문화의 부등성 정도가 심할 때 목표 언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표 언어 문화권의 문화대체어로 바꾸어 놓는 방식을 많이 구사되었다. 또한 문화소 부등성을 포괄적 등가로 극복하기 위하여 상위어로 바꾸어 놓는 번역방법도 사용되었다.

넷째, 원천 언어 문화소의 특색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음 차용 번역은 주석이나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고전 소설을 목표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호칭, 존대어와 하대어, 그리고 관용적 표현이었다. 오랜 계급 사회의 역사를 가진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계급과 신분에 맞는 호칭과 존대어 및 하대어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그러한 언어 표현들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반하여 영어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세부적이고 다양한 한국어 지칭 어휘를 영어 텍스트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하게 단순화 시키는 작업이므로 그 결과 역시 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원문 텍스트의 미묘하고 세분화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어 한국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한

국 문화의 특색을 알리는 데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도훈(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2)호, 한국번역학회. 31-51.
- \_\_\_\_\_ (2012). 번역에 있어서의 문화고유어의 중요성 및 번역전략: 『카인의 후예』 번역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5(1)호, 21세기 영어영문학회. 113-131.
- 김순영(2012). 한영 문학번역에서 문체 및 문화 특정적 요소의 번역전략 고찰: 김동인의 『감자』영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 가? 언어, 문화, 사회적 접근>,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영신(2009). 『한중록』과 *The Memoirs of Lady Hyegyong* 비교 연구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0(3)호, 한국번역학회. 53-75.
- 김효중(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박노철(2007). 비유 언어 번역방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이근희(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 전략, <번역학 연구> 4(2)호, 한국번역학회. 5-27.
- 이석규 외(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도서출판 역락.
- Aixelá, J. (1996).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In R. Alvarez & M. Cameron-Africa Vidal(eds.),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rnwell, K. (1999). *Bible Translation*. Jos, Nigeria: Nigeria Bible Translation Trust.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lman, M. & J. Boase-Beier. (1999). Writing rewriting and translation through constraint to creativity. In M. Holman & J. Boase-Beier(eds.), *The Practices*

---

4) Holman & Boase-Beier(1999: 7)는 창조성을 가지고 맥락 의미와 중개 수단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of Literary Translation-Constraints and Creativity*. Manchester: St. Jerome.
- Larson, M. L. (1998).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da, E. A. & C. R. Tabe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Venuti, L. (1995).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ermeer, H. J. (1983). *Translation Theory and Linguistics*. Heidelberg: Mimeo.

### 분석 대상 문헌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7). *The Story of Chunhyang*. Seoul: Baek Am Publishing Co.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0). *The Story of Cock Pheasant*. Seoul: Baek Am Publishing Co.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0). *The Story of Heungbu*. Seoul: Baek Am Publishing Co.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0). *The Story of Kongjwi & Patjwi*. Seoul: Baek Am Publishing Co.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0). *The Story of Rabbit*. Seoul: Baek Am Publishing Co.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00). *The Story of Sim Cheong*. Seoul: Baek Am Publishing Co.

노진서(Noh, Jinseo)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로 20

전화번호: 02-940-5579 / 010-3333-0636

전자우편: sweetnoh@kw.ac.kr

접수일자: 2013년 4월 7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6월 4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9일